

2019 SeMA 비평연구 프로젝트 메타비평: 미래를 위한 일

서울시립미술관(관장 백지숙)이 개최하고 하나금융그룹이 후원하는 'SeMA-하나 평론상'이 올해로 3회째를 맞아 8월 1일부터 25일까지 4주간 공모를 진행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비평 공모인 만큼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SeMA-하나 평론상'은 2015년 곽영빈, 김정현, 2017년 남웅, 문정현을 수상자로 배출했다. 올해 서울시립미술관은 'SeMA-하나 평론상'과 연계하여 미술평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SeMA 비평연구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서울시립미술관과 『미술세계』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첫 번째 SeMA 비평연구 프로젝트 '메타비평: 미래를 위한 일'은 'SeMA-하나 평론상'의 수상자들을 초대하여, 수상 이후 체감한 동시대 비평현장과 그것이 촉발한 비평가로서의 고민과 주장을 담은 글을 작성해줄 것을 부탁했다. 『미술세계』의 필자로도 익숙한 4인의 비평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라본 한국 미술계의 모습은 여러 비평적 이슈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세계』 7월호에는 1회 수상자 곽영빈과 김정현의 글이, 8월호에는 2회 수상자 남웅과 문정현의 글이 수록되며, '2019 SeMA 비평연구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은 『미술세계』 12월 특집 '미술비평진단③'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19
SeMA

잘라라, 평론하는 그 손을 : 미술과 글쓰기에 관한 다섯 해의 기록

글 문정현

“꼴사납게도 정보에 토실토실 살이 찌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비평가가 될 것인가. 초라하게 자기 진영에 틀어박혀 비쩍 말라가는 전문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각 자리에 어울리게 그 두 개의 가면을 재빨리 교체하며 살아갈 것인가.”

필자가 미술비평과 학술지면을 번갈아가는 때 순간 빈정거리는 마귀의 꼬임처럼 결연한 의지를 갉아먹는 위의 문구는 『야전과 영원』,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의 저자이자 사상가인 사사키 아타루(佐々木中)가 우악스럽게 질문하는 대목이다. 그가 진술한대로 최신 이론의 걸출기에 유능한 면모를 갖추어가며 요란하게 왕왕 떠들어대는 것이 비평에 종사하는 일이라면, 반대편에서는 미시적 구명으로 밀도 끝도 없이 침잠하며 수척해져가는지도 자각하지 못하는 꼬락서니의 전문 종사자가 주어져 있다. 또 한편에서는 두 가면을 시기적절하게 번갈아가며 지적 유

능함을 과시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겠다. 가령 오늘날에도 철학자가 가능한지 반문하며 설령 그렇다면 그 역할은 명배우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니체의 문구를 그가 직접 인용하는 까닭은 이와 같은 자조적인 지적(知的) 배경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물론 현장에 비평가와 전문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애당초 그곳은 발 빠른 기자와 저널리스트가 우르르 오가기에 안성맞춤인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소한 가십거리도 남김없이 취재 대상으로 포섭하는 기자와 엄숙한 표정의 학자들 사이에 끼어서 어정쩡하게 자리하고 있는 비평가의 역학관계는 명배우와 다른 방식으로 재상정되어야만 한다. 본 글의 목적 또한 전문가와 여타의 직군은 논외로 하고 미술비평의 현황으로 초점을 한정하여서 불협화음의 비평행위를 조율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데에 있다. 비록 그곳이 임시적인 정박지더라도 좌우로 흔들리는 비평의 노선을 끊임없이 조정하며 지향

해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비평이란 이론과 확연히 다른 걸을 지닌 성질로 비유하는 사상가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의 서술처럼 서재 안의 이론에 온전히 기댈 수도, 그렇다고 현장에서의 상주모호도 출하기에도 빈약한 비평의 어려움은 여러 차례 논해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고언들을 다시 한 번 감안할 때 비평가란 존재는 현장과 학술연구 사이에 긴 채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무엇이든 가능한 동시에 그 무엇도 될 수 없는 절뚝발이에 가까운 행색으로 그려짐을 보게 된다.¹ 명민한 저널리스트도 아닐뿐더러 독심 센 학자의 근엄한 의자를 탐내서도 곤란한 이 초라한 존재자는 매 순간 좌초하는 자신의 신체를 지탱할 수 있는 지푸라기를 허겁지겁 요하는 것이다.

이같이 위기에 닥치는 그때에야 비로소 구멍 도구를 찾고 목숨을 부지하는 비평가의 처신은 미술현장에서 보다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현업작가들과 친밀하게 교류함을 지양할 것과 동시에 현장의 동세에 완전하게 무지할 수도 없는 까닭에 그 균형점을 갖추는 데에서 언제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² 이처럼 밤낮의 안팎에서 이쪽과 저쪽에도 제대로 걸 수 없는 사나운 박쥐의 생김새로 지면에 거꾸로 매달려서 보초를 서는 고독한 문지기, 그것이 비평가의 본 모습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간만의 여유가 생긴 저녁 아늑한 방 안에서 느긋하게 책을 펼치고 읽으려는 순간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당황해본 사례들이 있을 것이다. 미처 정독하지 못한 구매서적을 펼쳐가며 다양한 시사상식들을 집어넣어야 하는지, 혹은 전문지식의 영역으로 보다 침잠하며 용어와 개념들을 가다듬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엔 어떠한 텍스트도 펼치지 못한 채 밤을 꼴딱 새고 시간을 허비해버린 날들이 단지 나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이는 비평이라고 하는 애매하기 짝이 없는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누적되는 하나의 에피소드일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오직 허울밖에 없어 보이는 빌어먹을 비평가의 자리에 올라서 대의 명분을 좇아보겠다는 일종의 유약함에서 연유하는 혼란일 것이다. 즉 돼지처럼 살 쥔 비평가의 재잘거리는 입아귀와 멀치같이 말라비틀어진 전문가의 핏기 없는 영덩이가 새겨진 동전의 양면을

거부하며, 모두에게 소구되기 위한 방편으로 머릿속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주입함으로써 현장 부근을 배회해야만 하는 당위의 성립에 스스로 먹히는 꼴이다.

사사키 아타루는 이러한 정보라는 먹이를 지속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가축 같은 꼬락서니로 굴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는 없는지 반문한다. 하지만 지식에 천착할 수록 마치 두 눈은 문맹이 되어가는 비평의 이율배반적 공란(空欄)에는 여전히 풀리지 못한 여러 물음들이 기입되어 있다. 여기에는 필자가 의뢰 받은 질문도 포함될 것이다. 즉 평론의 장(場)에서 글은 소외되고 비평가의 이름만 죽은 가축의 껍질처럼 남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묵은 의문 말이다. 필자가 글을 적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매번 되뇌게 하는 사사키 아타루의 문구를 서두에 가져온 이유이기도 하다. 비평과 학문, 나아가서는 진리 탐구에 대한 지리멸렬한 회의적 태도가 이처럼 되풀이되는 까닭은 아직까지도 각각의 좌석에 대한 감각 기반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할 것이다. 그 결과 여전히 우리는 비평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과 성립 요건을 자문해야만 한다. 이는 비평의 생존영역에서 유충의 딱딱한 고치처럼 벗겨진 이름들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먼저 비평가의 이름만이 표백되는 현상을 몇 가지 세부적인 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공모전에 수상한 뒤 활동 없이 이름만 남게 되는 경우로 가장 빈번하게 목도되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현장에서 잊히지 않기 위한 구실로 계속 호명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에 의거하여 왕성한 집필로 그 이름을 공표하는 경우다. 후자는 전자와 달리 다작으로 이름을 계속 선포한다. 셋째로, 퇴위에 물린 사자처럼 기운이 쇠한 유명세만이 표피에 달라붙은 상황도 가능하다. 여기에는 미술 지면에 착실하게 평론을 적는 경우보다는 논쟁에 첨언을 얻는 대외적 활동 혹은 어부징(abusing) 행위도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³ 도리어 공적 활동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면 활동에만 정진하며 이름이 소거된다는 상반된 견해 역시 피력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무한 평론 활동과 이를 고무하는 환경의 부재에서 그 이름이 자발적으로 기억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가능할 것이다.

다소 이상적인 어투로 자신의 책이 존재가치가 없어

지는 시대를 소망함을 수차례 밝힌 사사키 아타루의 의중도 위의 마지막 문장을 염두에 둔 신념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실제로 그 자신이 일정 기간 여하한 문화적 활동과 식견도 의도적으로 중단한 적이 있다고 고백하듯이 말이다. 어쨌든 두루 광야를 헤매며 정보의 먹이를 살피지도 않고, 안다는 것에서도 가치를 거둔 채 정보를 차단해버린 그의 낭만주의적 행동을 위의 선택지에 맞추고 추론하기에 앞서 작년 하반기 석 달여에 걸쳐서 한국미술평론계를 크게 조망한 《한국미술평론의 역사》(2018.6.28~11.10)전을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가 10월 24일 김달진 미술연구소를 방문하여서 청강한 '한국미술평론의 역사전, 미술평론계의 오늘의 상황' 강연은 무수히 많은 비평의 이름들이 박제되어 사라지고 있음을 직접 듣고 체험한 하나의 일례였다.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신춘문예부터 협회 내에서 주관하는 미술 이론제도까지 매년 평론가의 이름들이 표기되지만 이들의 활동을 그만큼 정도로 주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⁴ 매년 등단하는 이들이 잡지사에 송고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한정된 지면에서 기성 평론가들이 게재하는 공간 역시 반비례로 소진된다는 맹점도 있다. 즉 이름의 기표만이 허공에 연례적으로 새겨지는 미술비평의 요람은 애초에 임시적으로 조성되는 유약한 지층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필자가 의뢰받은 질문, 즉 미술비평 행위와 이름이 따로 작동하는 현장의 풍경이 특별히 이질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가 처음 미술평론제도에 응모한 것은 『아트인컬처』 잡지사에서 시행하는 '뉴비전 2014' 때이다. 이전부터 소소하게 적은 미술전시 리뷰들을 모아서 보냈고 파이널리스트 3인에 선정되어서 세 달 동안 지면의 기회를 얻고 경합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후 미술평론의 지면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다. 종종 탈고한 원고를 잡지사에 송고해도 거절 의사의 메일 답변이라도 받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다.

이후 '2017 SeMA-하나 평론상'에 등단한 시기까지 포함하면 공적 지면에 미술평론을 싣기 시작한 지 벌써 다섯 해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면의 기회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 가지 차이점은 SeMA-하나 평론상의 수상 이후 리뷰 원고를 먼저 송고하며 게재 여부를 묻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공모에 당선되었다는 자존감과 별개의 사항으로서 필자 또한 비평가의 지위를 '을'의 위치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동조하지 않기 위함이다. 즉 밀고 당기는 일종의 정치행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부여된 미술평론가의 자리에서 먼저 조아리며 "존경하는 편집장님께. 귀사의 지면에 원고를 실어달라..."는 식의 문장을 적어서는 안 된다는 공적 책임감이 선행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쯤 논증하고 싶은 미술 전시를 관람하게 될 때에는 적절한 지면을 찾아야 한다는 조바심과, 이것을 내 이름으로 평론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자기검열과, 잡지사에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염두에 둘 때 평론하는 손은 도리어 그 주인을 궁지로 몰며 심문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행위와 당사자의 명의를 괴리하는 지점에서 한갓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욕망이 선행한다면 차라리 그 손은 절단되는 편이 나올 것이다. 갓 등단한 필자가 이상의 논제를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이 실례임을 양해하면서도 그 절단된 손목의 마디에서 비평의 온전한 성능이 다시 움트며 싹을 키울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물론 일종의 명에 포식으로 남은 껍질을 가져다가 쓰고자 하는

1 모든 기술 사항들을 열거할 수 없는 관계상 축약하자면 심상용은 "비평이 결여된 학습이나 반성이 결핍된 이론"을 경계하며, 김홍희는 "미술사의 시각적 위계, 지배적 해석"에 비평이 개입할 것을 요구하며, 이선영은 "학문 활동과 창작의 중간에서 직관에 의존하는 일종의 작품으로 비평을 논하며, 임근준은 비평가는 "자신의 직능을 재창안"하는 길을 모색한다. 이상의 나열은 필자가 최근 무작위로 다시 펼친 지면의 내용만 발췌해서 간략하게 인용했음을 밝힌다.

2 이는 필자가 오프닝 행사마다 참석하여서 술을 거두고 작가들과 밀접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비평가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평가는 일정 정도의 우울함을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데에서 그 존재 가치의 이유가 성립한다고 사유하기 때문이다.

3 특정 대상에 대한 과도한 공격과 편 가르기, 집단 구성 등의 행위로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기에 용이해진 목적지향의 시대는 비평공간의 또 다른 단면으로 규정할 수 있다. 반대로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상대방의 이름을 애써 언급하지 않으므로써 지워버리는 현장의 분위기도 불능한 것은 아니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어뷰징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기사가 회자되었다. Umair Haque, "Why Twitter's Dying (And What You Can Learn From It)," Oct 13, 2015. (<https://medium.com/bad-words/why-twitter-s-dying-and-what-you-can-learn-from-it-9ed233e37974>)

4 참언하자면 해당 전시공간을 방문한 필자 역시 미술평론사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경미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평론 공모에 당선되었다는 책임감이 선행되어서 발걸음을 옮긴 기제였음을 고백한다.

일련의 근집도 있을 것이다.⁵ 그럼에도 이 같은 생존의 정치 지형에서 잇속에 밝은 손은 평론할 자격을 박탈당함이 마땅하다. 오히려 그 손목을 도려낼 때 절단된 터에서 흔탁하게 묻힌 비평의 음계가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몽뚝하게 봉합된 손모가지에서 어떠한 이름으로 주체가 호명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비평가도 전문가도 되지 않겠다고 자신하는 것은 사사키 아타루의 증언대로 도박에 가까우며 그 보상으로 소음에서 벗어난 조용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여전히 많은 전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매달 읽어야 할 미술지면의 텍스트도 넘쳐흐른다. 사사키 아타루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제한된 삶과 그로부터 무지를 마주하며 읽는다는 행위는 자가당착에 가까운 기만의 시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은 한 올의 실오라기조차 모조리 벗겨낸 원점에서 남겨진 이름을 마주 보고 수상의 명예를 유예하여서 참된 고독을 마주하는 일이다. 버지니아 울프의 증언대로 “최후에는 고독한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후에만 그 고독한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비평의 현장에서 지금도, 이전에도, 우리는 언제나 고독하게 싸워왔기 때문이다. 처절하리만치 외로운 전장에서 일시나마 반짝이는 이름은 그리하여 제 존재를 스스로 지움으로써만 각인되고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쓴다는 것이 혁명과 결부되는 주권적 행위라는 식의 거창한 주장을 거듭하기 위함은 아니다. 비평가란 그 이름을 뒤엎고 짓이기고 배제해버리는 반복의 경과를 통해 매순간 공허해지는 본인의 초상을 대면함으로써만 가능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비평 공모에 의례적으로 기입되는 또 하나의 기호로서 무의미하게 남든, 혹은 명예로서 보존되든 명함이란 부차적인 잔여물인 것이다.

이와 같이 어쭙잡은 영위와 이를 보장하는 이름 뒤에 남고 싶다면 평론하는 그 손은 잘라내는 편이 낫다. 비평의 성립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섬기지 않고, 또한 그 누구도 부하로 두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동지도 두지 않은 채 오직 적막한 고독함 속에서 홀로 경로를 더듬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저널리스트도, 학자

도 아닌 비평가로서 온전하게 이룩할 수 있는 성취일 것이다. 외로움을 기꺼이 나의 벗으로 삼고 게걸스레 오명을 섭취하는 존재, 전문가의 가면을 버리고 텅 빈 전시장 한가운데에 노출되어 작품을 정시하는 존재, 나 따위가 무슨 비평가인가 자조하며 움츠러든 어깨로 고독하게 미지의 문턱으로 주행하는 이에게 평론하는 그 손은 필요 없다. 험한 숲속의 오솔길에서 지긋한 험담과 거짓된 모함의 등 뒤로 덕지덕지 달라붙더라도 제 입으로 피할 수 없는 악명을 꾸역꾸역 먹어감으로써 성립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화하지 못하는 명운의 비평가이기 때문이다.

돌아와서 견고한 장벽이 허물어진 문틈에 낀 엉거주춤한 자세로 좌우 경계를 살펴야만 하는 비평가의 숙명은 길게 내린 어둠을 후경으로 축축한 봄비에 잎이 질 때 그 모양과 형태가 한결 아름다운 목련과 같이 노정될 것이다. 비평의 가치가 빛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두운 동굴의 음습한 응달에서만 가능한 소치이기 때문이다. 비평이 기능하지 않는다는 우려와 조롱이 매번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비평이란 것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실재하듯이, 많은 이름들이 못다 피어 사라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이름들이 죽은 것은 아니다. 이야말로 “정보에 토실 토실 살이 찌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비평가에서 꽃잎이 지기를 엄숙하게 기다리는 검푸른 밤의 목련으로, 천박한 재주의 그 손을 잘라내고 비평가로 다시 피는 길이다.

질척하게 짓이겨진 언덕바지의 묘비 위로 지금도 무수한 이름들이 뒤덮여있다. 한없이 무거운 동시에 깃털처럼 가벼운 가치명제로서 비평의 무게에는 쓸모없다시피 많은 책임이 뒤따른다. 귀중한 전리품과 값진 퇴직금도 없는 이 곳에서 공문서에 찍힌 비평의 인감은 가냘픈 두 다리를 움켜잡고 동굴 밖으로 달아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내내 포획할 뿐이다. 훗날 음지로 밀린 이름들을 감지하고 못다 핀 미완의 이무기로 이들을 호명할 수 있는 권한은 후대의 비평가들에게 주어진 고유의 몫일 것이다. 그 주체들을 기다리며 이만 글을 맺는다. 어쭙든 번데기의 껍질은 벗겨지는 법이다. ▣

5 월간 『미술세계』 통권 385호 지면에는 작가가 비평가의 저명한 이름값이 붙은 글만을 소구한다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촉발된 홍태림 『크리티컬』 운영자와 강정석 작가의 사소한 설전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쟁은 비단 해당 지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목격된다.